

# 200년전 발간 '목민심서' 창극으로 만난다

도립극악단 '목민심서-백성이 근본이다'  
백성들 돕고자 했던 다산 정약용 삶 다뤄  
예산 1억 들여...80여명 전 단원 무대 올라  
전통국악·현대음악 접목 32곡 노래 등장

발간 200주년을 맞은 '목민심서' 이야기를 창극으로 만난다.

전남도립극악단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27일 오후 5시 무안군 남도소리울림터에서 정기공연 창극 '목민심서-백성이 근본이다'를 연다. 지난해 현대를 배경으로 한 창극 '당신의 의미'를 무대에 올렸던 국악단은 올해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백성들을 마음을 다해 돕고자 했던 정약용의 삶을 다뤘다.

지난해 이어 유장영 전남도립극악단 예술감독이 작곡과 총감독을 맡고 판페라 '이순신'과 연극 '사랑해요 당신'을 연출한 이재성 가천대 교수가 연출했다. 대본은 신춘문예 당선작 '카오스의 거울'과 차범석희곡상 수상작 '푸르른 날에' 등을 집필한 정경진 작가가, 안무는 심현아 씨가 맡았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문화관광재단과 도립극악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목민관을 뽑는 6·13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

도장(導唱)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창극은 백성을 먼저 생각한 정약용과 세도 정치를 비판하며 힘을 키우려 했던 홍경래의 대립 구도가 핵심이다. 작품은 정변에 휩싸여 형 정약전과 함께 유배길에 오른 정약용이 과도한 군정에 못 견디 스스로 거세해버린 한 가정을 보고 치민의 도리를 논한 '목민심서'를 쓰기에 이르는 과정을 담았다.



전남도립극악단이 오는 26~27일 목민심서 발간 200주년을 맞아 창극 '목민심서'를 선보인다. <도립극악단 제공>

다산의 능력을 알아본 정조와 시에 재능이 있는 황상, 문제가 뛰어난 이학래 그리고 세도가의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 난을 일으킨 홍경래 등 정약용을 둘러싼 인물들이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지는 무대를 채운다. 또 정약용의 후손인 공무원 '정과장'을 등장시켜 조선 후기와 현대를 오가는 대목에서는 대형 영상을 이용해 관객의 불거리를 더했다.

이번 무대에는 전통국악과 현대음악이 접목된 32곡의 노래가 등장한다. 판소리의 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시김새를 차용하면서 우리 소리의 전통을 유지하는가 하면 뮤지컬의 음악 요소를 빌리기도 했다. 예산 1억원을 들인 이 작품에는 최윤석(정약용 역) 등 도립극악단 전 단원

80여 명이 무대에 오르고 이현기 등 광주에서 활동하는 연극배우가 출연한다.

유장영 예술감독은 "강진 다산초당에서 완성된 목민심서는 지역 정체성을 찾기 위한 창극으로 더없이 적절한 소재라 생각한다"며 "다산이 세상을 향해 던진 메시지를 충분히 살리고 관객에 재미를 주기 위해 다양한 극적 요소를 가미했다"고 말했다.

공연 전에는 특별전시 '茶山(다산)'과 트리아트 사진촬영, '청림나무' 표어 짓기 등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일반 1만원(대학생·단체 7000원, 학생 5000원). 문의 061-285-6928(예매 티켓링크).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문화쉼터 '김넷과' 서 25일 '도시락(樂)콘서트'

한희원 작가 그림 이야기·경매도

문화쉼터가 된 옛 병원건물 '김넷과'에서 오는 25일 7시 30분 9번째 '도시락(樂)콘서트'가 열린다. 매일 마지막 주 목요일 여는 이번 연주회 주제는 '시를 노래하다'이다.

먼저 황혜연(사)어섬오케스트라&콰이어 단장의 사회로 문을 여는 1부는 '가곡의 밤'으로 꾸며진다.

베이스 김일동이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한 안 프렌켈의 '백학', 윤학중의 '마중', 조두남의 '산촌'을 부르며 소프라노 신은선이 슈베르트의 '클레르첸의 노래'와 이흥렬의 '꽃구름 속에', 로시니의 '피렌체의 꽃파는 처녀'를 무대에 올린다. 테너 윤승환은 토스티의 '부첼라'와 쇼팽의 '슬픔', 정환호의 '꽃피는 날'을 부른다.

2부에서는 서양화가 한희원 작가를 만난다. 한 작가



테너 윤승환

는 이번 자신의 작품 '여수로 가는 막차' 등을 소개하며 40년 그림 인생을 이야기한다. 강의 뒤에는 한 작가의 '붉은 꽃'에 대한 경매도 열린다.

지난 2월부터 클래식양상블, 가곡 무대까지 다양한 장르로 진행던 여덟차례의 콘서트에는 1000여 명이 다녀갔다.

다. 관람료 1만원. 문의 010-3906-982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여성재단 25일 릴레이 토크콘서트 '대디 톡톡톡'

광주여성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동구 호남동 재단 8층 강의실에서 전국 릴레이 토크콘서트 '대디 톡톡톡'을 진행한다.

전국 평등교육진흥협의회 소속 8개 회원기관이 함께하는 릴레이 토크콘서트는 성차별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위드유(With You)' 운동 등을 다룬다.

임선주 광주시 직장맘지원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육아휴직의 경험이 있는 광주지역 아빠 4명(윤지원 롯데백화점 대리, 정주영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김형우 광주교도소 보안과 부장, 김원기 산업근로연구소 연구원)이 대화를 나눈다. 문의 062-670-053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협의회체 내일 정기회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 협의회체 정기회의가 24일 오전 10시 30분 광주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협의체'는 광주시 주최, 광주문화재단 주관으로 광주의 미래를 탐색하고 실현하기 위해 10개의 광주 유관기관들로 구성됐다. 이번 하반기 정기회의에는 미디어아트

분야별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광산업 및 창작 제작 소위원회 현황과 각 대학별 협업방안을 공유하며 11월에 열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과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9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문화읽기

올해 출판계는 '82년생 김지영'으로 대변되는 페미니즘이 강세였다. 한편 '푸'와 '보노보노'를 내세운 이색적인 캐릭터 에세이집과 정겨운 제목을 단 소설집들도 눈에 띈었다.



김용태 소설가

화제성은 당연 '82년생 김지영'이었다.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책이 두고두고 많은 독자 및 네티즌들, 평론가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쳤다. 나는 해당 도서 자체보다는 독자들의 반응에 대해 관심이 있다. 이를 만화캐릭터를 활용한 에세이집의 등장과 관련지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초등학생 시절 학급회의를 처음으로 경험할 때였다. 담임선생님은 토론과 토의의 개념을 알려주면서 학급회의는 토론 시간이라고 알려주었다. 문제에 대한 찬반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펼치며 서로를 설득해가는 과정이 토론이

로를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안다. 이에 '공감'이 화두인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내 삶을 지지받고 싶은 욕망. 사실 최근 화제가 되는 에세이집들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이미 쓰일 대로 쓰여져 생명이 없는 것만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문학의 복고

## 아프지 말자, 너도

다. 때문에 그 과정이 거칠 때도 있다. 반면 토의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마다의 의견을 제시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그런데 아 이러니하게도 최근 우리사회는 토론만 있지 토의는 없는, 상위개념이 없이 하위개념만 있는 기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가 '82년생 김지영'을 두고 벌어진 논쟁들이다. 온라인상 반응들이 무서울 정도로 과격하다. 그러나 그 과격한 언쟁들보다 섬뜩한 건 논란의 핵심인 페미니즘은 사라지고 남녀간 성대결로 치닫는 국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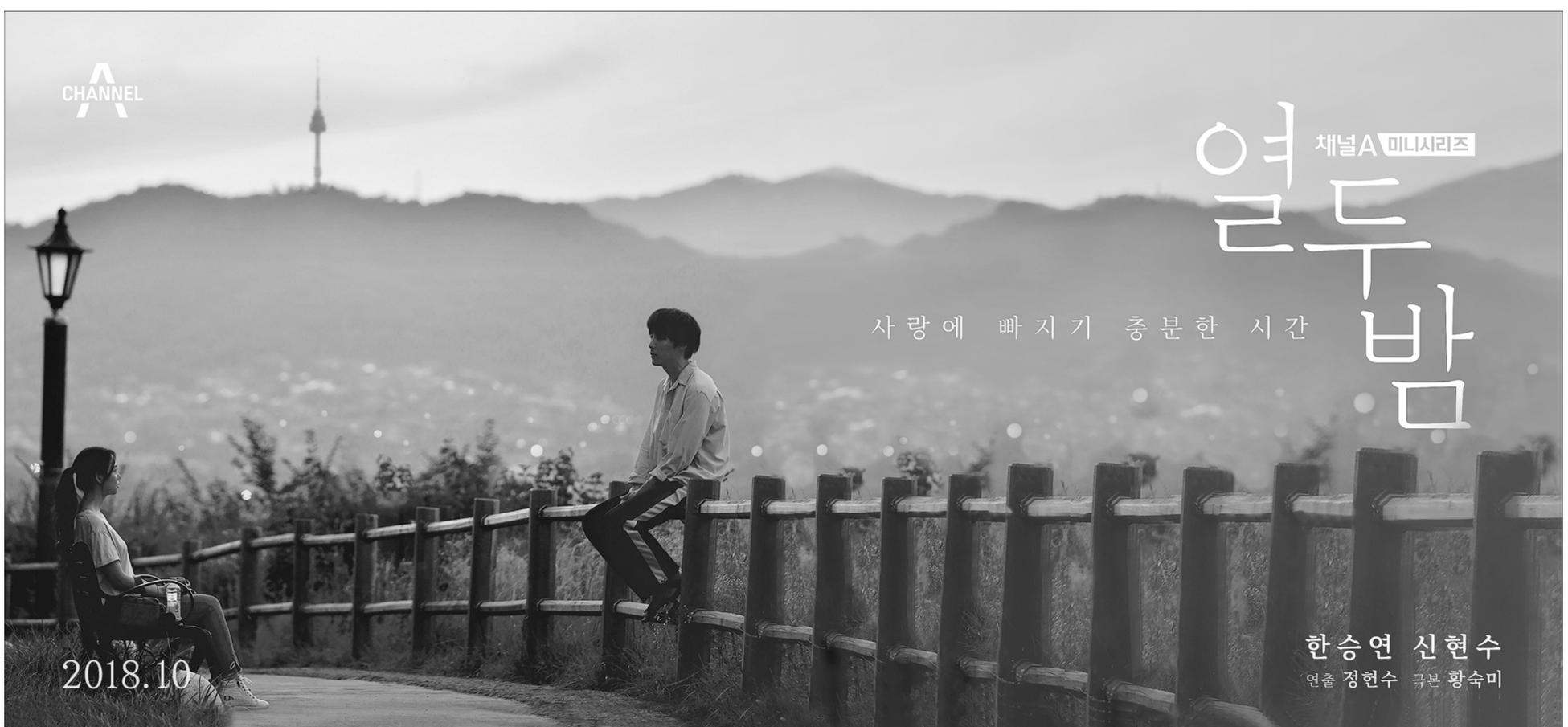
나 또한 한 쪽의 말만 듣고 의견을 피력했다가 날 뜨거워지는 사례를 익히 경험해왔다. 최근 보육원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맘 카페의 편향적인 반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보육교사의 사례는 한 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듣고 손쉽게 동조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한다.

현상이라 불리도 좋을지 모르겠다.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도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익숙한 것들은 효율적이다. 얼마 전 심년이 더 지난 커다란 옷을 입고 '복고'를 운운하며 아내 앞에 보인 적이 있다. 그러자 아내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복고 여도 지금 건 핏이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닌가. 복고는 예전의 것을 그대로 표절하는 게 아니다. 재해석이라는 의미가 있다. 향유층의 입장에서 작품 속에 진입하는데 소모되는 공력이 적다는 매력에 있다.

아마도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공감'과 '복고'를 테마로 한 문화예술 품들 또한 많아질 것이다. 이는 예술이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소통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꾸는 꿈을 판타지라고 한다면 최근의 복고는 판타지이다. 판타지의 진정한 힘은 현실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게 해주는 것이다.

가시투성이인 고슴도치도 배는 보드라운 털에 덮여있다. 문화예술계에 양질의 판타지들이 많아져 우리 고슴도치들이 등이 아닌 배로 서로를 안을 수 있을, 그래서 그대로 나도 아프지 않을 수 있단 믿음을 주길 바라본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CHANNEL A

# 열두밤

사랑에 빠지기 충분한 시간

한승연 신현수  
연출 정현수 극본 황숙미

2018.10